2014년06월12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④	④	③	①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⑤	②	⑤	③	②	④	③	③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글의 농부의 행위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는 농부를 보았다. 그런데 그 농부도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한 그 작가가 물었다. "소달구지를 두고 왜 당신이 볏단을 지고 가시죠?" 농부는 대답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소?" 작가는 생각했다. '소의 짐마저 덜어 주려는 마음! 내가 한국에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야.' 그 작가는 그 후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

①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다.
②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③ 유희적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④ 타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존재이다.
⑤ 세속으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2. 서양 근대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도덕의 토대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다. 도덕적 가치, 즉 선악은 사회적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산물이다.
> 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서 찾아야 한다. 쾌락의 양(量)은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 병: 도덕적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은 감각적 쾌락보다 지적·정신적 쾌락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① 이성의 힘으로 선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② 옳은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정당화되는가?
③ 각 행위 결과의 선악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는가?
④ 사회적 전통과 관습에 의해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정되는가?
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가?

3.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정의와 공정성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도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배려와 동정심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① 도덕 교육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② 도덕 교육에서 인정(人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③ 도덕성에 있어 남녀의 성차(性差)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④ 도덕성에 있어 원칙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⑤ 도덕성과 도덕 교육에서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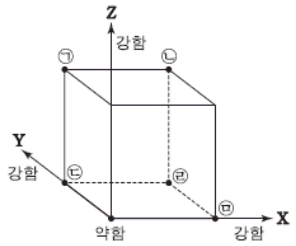
4. 갑, 을은 동서양의 사상가들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색(色)은 무상(無常)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에 집착하게 된다.
> 을: 동물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인간에게는 이 의지가 표상에 의해 많이 덮여 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는 식물에게도 나타난다.

① 갑은 모든 것은 변하므로 실체(實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갑은 만물의 관계성을 직관하여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禁慾)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윤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삶이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본다.

5. 갑, 을은 조선 후기 사상가들이다. 을의 사상에 비해 갑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중에서 고른 것은?

> 갑: 언제나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기(器)이다.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 이로운 것이라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행할 수 있다.
> 을: 서양인은 말에 순서가 없고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으며, 다만 제 몸만을 위해 빌 따름이다. 그들의 도가 허무의 학설에 가까운데 어찌 우리의 도와 같다고 하겠는가?



- X: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
- Y: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려는 경향성
- Z: 유교, 불교, 도교를 통합하려는 경향성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6. 갑, 을, 병 모두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端)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이다. 사람에게 이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 을: 이치[理]가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선(善)일 뿐이고, 만물이 생길 때 비로소 본성[性]이라 부르게 되며, 마음[心] 안에 이치가 있게 된다. 이치가 곧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이치와 기질[氣]이 결합하여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게 된다.
> 병: 마음이 곧 이치이다. 어찌 마음 밖에 본성이 있겠으며 본성 밖에 이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이치 밖에 마음이 있겠는가? 마음 밖에서 이치와 본성을 구하면 이는 '옳음[義]이 밖에 존재한다.' 는 고자(告子)의 이론이다.

① 사단은 도덕적 교화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다.
②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감정(情)은 아니다.
③ 사람은 누구나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④ 사단이 발(發)하여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⑤ 인간만이 본연지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7. 을의 입장에 대해 병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端)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이다. 사람에게 이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 을: 이치[理]가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선(善)일 뿐이고, 만물이 생길 때 비로소 본성[性]이라 부르게 되며, 마음[心] 안에 이치가 있게 된다. 이치가 곧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이치와 기질[氣]이 결합하여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게 된다.
> 병: 마음이 곧 이치이다. 어찌 마음 밖에 본성이 있겠으며 본성 밖에 이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이치 밖에 마음이 있겠는가? 마음 밖에서 이치와 본성을 구하면 이는 '옳음[義]이 밖에 존재한다.' 는 고자(告子)의 이론이다.

〈보 기〉
ㄱ. 마음과 이치는 하나이므로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ㄴ. 마음과 본성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이치는 마음 안[內]뿐만 아니라 마음 밖[外]에도 있다.
ㄹ.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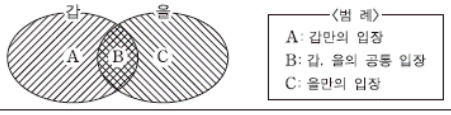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중세 및 근대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이며, 인간법은 자연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별자뿐이다. 보편자는 단지 이름일 뿐, 실재하지는 않는다. 존재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 병: 면죄부를 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오직 성서' 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 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① 갑은 진정한 행복에는 믿음, 소망, 사라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을은 신의 존재를 믿었으나 이성적 증명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③ 병은 신자(信者)는 누구나 성서를 통해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은 교회를 통한 구원과 함께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한다.
⑤ 갑, 을, 병은 신의 은총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이성(logos)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므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을: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 우리는 그 우주의 필연적 질서를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神)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
(나)	

〈보 기〉

ㄱ. A: 정념에서 벗어나 아파테이아(apatheia)에 도달해야 한다.
ㄴ. B: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ㄷ. B: 신과 자연에 대한 이성적 앎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ㄹ. C: 참된 인식은 우주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사례> 속 A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 례〉

A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다. A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뭘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야."

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② 친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③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⑤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사람의 본성[性]이 악하다면 예의(禮義)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인위[僞]에서 생기는 것이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을: 인의예지[四德]의 근본은 사단(四端)이므로 이것을 확충(擴充)하여야 한다. 사단의 안[裏面]에 사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단의 확충을 통해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사단은 마음[心]이 될 수는 있지만 본성이나 덕(德)은 아니다.

〈보 기〉

ㄱ. 사단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ㄴ. 예의는 실천적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자연적인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ㄹ. 본성을 확충하면 누구나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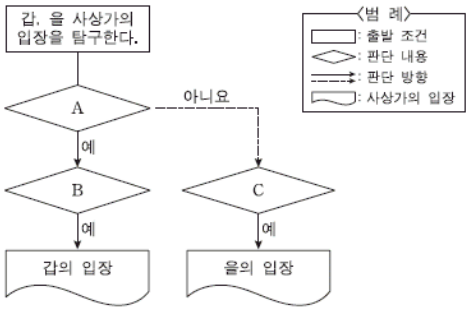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 그 외의 경우 개인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을: 개인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한다. 내 가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는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

(나)



① A: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② B: 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강조하는가?

③ B: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적 도덕성의 주된 기초인가?

④ C: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한가?

⑤ C: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되는가?

13. 다른 사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의 공평한 분배이다.

〈보 기〉

ㄱ. 독재 정치를 부정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ㄴ. 모든 경제 부문에서 전면적인 국유화의 추진을 강조한다.
ㄷ. 급진적인 혁명보다 선거와 정당을 통한 개혁을 강조한다.
ㄹ.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갑, 을은자본주의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사람과 공장이 놀고 있으며 지출되는 돈보다 저축되는 돈이 더 많은데도 정부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놀고 있는 사람과 공장이 바로 그것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의 지식은 오류 가능하고 불완전하다. 경기 변동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에 대처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① 정부의 개입이 경기 침체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② 의도가 좋더라고 정부의 경제 개입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③ 시장 경제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규제를 낳게 된다.

④ 시장은 인위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생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다.

⑤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15.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을: 통치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재정이 궁핍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①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② 법률과 세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③ 백성을 무지(無知)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④ 천명을 받은 성인(聖人)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⑤ 인위(人爲)를 통해 예치(禮治)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이론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관찰과 경험은 소홀히 하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운 명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전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진리가 얻어진다.
> 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얻어진다.

① 갑은 위대한 사상가의 주장은 비판 없이 수용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인식의 제1 원리로 본다.

③ 갑은 연역적으로, 을은 귀납적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추론이 필요 없다고 본다.

17.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할 절대적 도덕 규범이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이상국가의 수호자의 덕에는 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③ 갑은 보편적인 존재를, 을은 개별적인 존재를 앎의 원천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인간의 삶에서 도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갑, 을은 도덕이 주관적인 것이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선정(禪定)에서 선(禪)은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는 것이요, 정(定)은 안으로 혼란되지 않는 것이다. 자성(自性)은 그 자체로 깨끗하니,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 을: 중생의 감각적·심리적 기관[六根]은 일심(一心)에서 생겨났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근원을 배반하여 모든 번뇌가 이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 번뇌를 떨쳐버리고 일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우선해야 한다.

② 인과응보의 숙명을 깨닫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③ 분별적 사유를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사고력을 향상시켜서 시비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⑤ 열반의 경지는 글(文字)을 통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
> 을: 국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제할 필요성에 기원을 두며, 이러한 통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에 의해 수행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① 갑은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 저절로 발생한다고 본다.

② 을은 계급 없는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실현된다고 본다.

③ 을은 역사발전의 최종단계에서 개인의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④ 갑은 권력 분립을, 을은 권력 집중을 바람직한 통치 구조로 본다.

⑤ 갑,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20. 다음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선(善)이라고 부른다. 목적은 무한히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이 있다. 최고선은 곧 행복이다.
> ○ 중용의 덕은 지나침으로 인한 악덕과 모자람으로 인한 악덕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방식 등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① 중용은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중용의 덕은 행복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③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중용인지 알 수 있다.

④ 중용의 덕을 갖추려면 옳은 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⑤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 중용의 덕은 하나이고 악덕은 여럿이다.